

여수 거문도 ‘K-관광 섬’ 선정...세계섬박람회 힘 받는다

4년간 국비 50억 등 100억 투입 ‘K-문화’ 융합 섬 개발
벧노래 전수관 조성·국제 청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계 등

여수 거문도가 정부가 육성하는 ‘K-관광 섬’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이 실렸다.

여수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K관광 섬 육성 공모사업’에 삼산면 거문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육지와 달리 않은 전국 14개 섬이 지원했으며, 전남에서는 거문도와 신안 흑산도가 선정지 5곳 가운데 이름을 올렸다.

여수시는 국비 50억원 등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고 4년간 거문도를 ‘K-문화’와 융합한 세계적인 섬으로 키워낼 계획이다.

우선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편의시설 기반을 강화하는 등 섬 관광 밀그림이 될 섬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거문도의 역사·문화 자원과 환경을 활용해 지속가

능한 체험형 K-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거문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장, 등대, 초등 학교가 있는 서양 문물 수용과 전파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1905년 세워진 거문도 등대는 남해안에서 가장 오랜 역사가 있다.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이다.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 1885년 4월15일 거문도를 점령하고 영국군 병사들이 23개월 동안 이곳에 주둔했다. 거문도에는 지금도 영국군 수병 묘 3기가 남아 있다. 당시 영국군은 해군 제독 해밀턴의 이름을 따서 거문도를 ‘포트 해밀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당시 거문도 특산물인 해풍 쪽으로 만든 빵과 수프, 한방 상품 등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체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 청년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화 교류도 벌인다. 마을

일손 돕기 등 20~30대의 자원봉사 여행 수요를 잡을 계획이다.

거문도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관광도 도입한다.

해안가 정화 활동에 동참하고, 거문도 특산물인 해풍 쪽을 활용한 치유 관광(웰니스)을 연계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생각이다.

여수시는 거문도에 전해온 이야기들을 주요 관광 요소로 만들어낼 방침이다.

옛 거문도 사람들이 어구를 만들며 불렀다는 ‘솔비노래’와 150년 넘는 역사의 ‘벧노래’ 등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거문도 서도 해안가에 ‘신지끼예’라는 작은 섬에 자주 목격됐다는 인어 이야기도 매력적인 관광 요소다.

거문도에 있는 폐교는 방문객 안내센터와 거문도 벧노래 전수관·갤러리로 탈바꿈한다. 이곳은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 될 예정이다.

정재호 여수시 수산관광국장은 “이번 공모선정은 전남도와 여수시, 지역 전문가 등 모두의 협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가 최근 정부 ‘K관광 섬 육성 공모’에 선정되면서 4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체험형 K-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거문도 전경. <여수시 제공>

의 주제인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로 거문도를 역사의 관문에서 대한

민국 K-관광의 관문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예술의전당 공연, 순천박람회서 만나요

국제습지센터상영관 ‘작 온 스크린’ 하루 2차례
‘호두까기 인형’·베를린 필하모닉 공연 등 35편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무료 상영된다.

재단법인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순천만국가정원 1층 국제습지센터상영관에서 예술의전당 대표 공연을 상영하는 ‘작 온 스크린’을 매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작 온 스크린’(SAC on Screen)은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 공연을 상영하는 문화 행사이다.

10여 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으로 공연자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를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국제습지센터상영관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상영한다. 무료 권역인 오전그린광장 ‘ACC무빙시아터’에서도 4월, 6월, 9월, 10월 주말 저녁 만날 수 있다.

상영작은 발레 ‘호두까기 인형’과 뮤지컬 ‘명성황후’,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 오페라 ‘마술피리’ 등 35편이다.

조직위는 예술의전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박람회 기간 상시 상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작 온 스크린’의 상영권은 월 최대 2회씩만 제공돼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소방서, 국민참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가 최근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출동 시 발생하는 장애·애로사항 등을 시민이 직접 경험, 출동로 확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 소방차에는 광양시장, 광양소방서장, 광양경찰서장, 광양시의회 안영현 운영위원장, 정구호 총무위원장, 최대원 산업건설위원장이 동승해 진행됐다.

훈련은 지능형교통체계(ITS) 교통정보센터 개소식에 맞추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

운행을 함께 실시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상황 발생 시 목적지까지의 교통상황을 고려한 최적 경로를 제공하고, 긴급차량 진행 방향으로 녹색신호를 우선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현장까지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GS칼텍스-여수광양항만공사, 취준생 점심 쏜다

여수시립도서관에 4000만원 후원

GS칼텍스 노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전남 여수지역의 시립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취업준비생의 점심값으로 4000만원을 후원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GS칼텍스 노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14일 여수시청에서 만나 각각 2000만 원씩을 기탁하는 전달식을 했다.

양측의 후원금은 여수시 곳곳에 분산된 시립도서관에서 취업을 목표로 공부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점심을 지원하는 ‘따뜻한 밥상’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올해 ‘따뜻한 밥상’은 이번 기탁금과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4300만 원이 더해져 총 8300만 원의 사업비로 100명의 취업준비생에게 월 10만 원의 중식비가 지원된다.

올해 7년째를 맞는 ‘따뜻한 밥상’은 지난해 취업준비생 646명을 지원했으며, 11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김기웅 GS칼텍스 대외협력 부문장은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따뜻한 식사



여수시 취준생을 위한 따뜻한 밥상 후원에 나선 GS칼텍스노사-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시 제공>

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중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사장은 “취업준비생에게 취업 성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만큼 나뉘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따뜻한 밥상’ 사업을 6년째 후원하는 GS칼텍스 노사와 후원을 시작해 준 여수광양항만공사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이 취업준비생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우주항공 중심도시’ 대표 디자인 개발·공모

30일까지 1인당 2건

고흥군이 군정 구호인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을 대표하는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군정구호 브랜드(BI) 디자인’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으로, 디자인 개발 시 이 문구를 사용해야 한다.

타지역 브랜드 디자인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2건까지 가능하다.

응모 방법은 고흥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신

영도 방법은 고흥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신

청서를 받아 오는 4월 3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전문가·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창의성, 적합성, 친근성, 가독성 등을 평가해 군정구호에 적합한 브랜드 디자인을 확정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2명 각 100만원, 장려상 4명 각 50만원을 지급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4월호

2023년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자연 그리워 정원으로 가는 마음 | 전남·북 지방정원, 민간정원 | 미리 가 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세계질 꽃피는 섬' 신안 섬정원화 사업 | 정원의 매력 만날 수 있는 영화·다큐

남도 오디세이

美路味路

“뚝, 뚝, 뚝 나비야 일어나! 봄이야!”

함평천지로 봄 힐링여행

함평 자연생태공원 | 함평 나비 대축제
간기 좋은 ‘함평천지길’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에서 하룻밤
‘녹색식물’ 유기농 양배추
‘나비환’의 가장간편식 추어탕
연복배기 동화같은 카페 ‘인투트’

해외문화기행⑤

안데르센의 도시, 코펜하겐
세계인들이 찾는
인어공주 동상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⑥
광주 송정역과 판소리꾼 임방울
항꾸네 기차에 올라타고, 설움의 경적이 울렸다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⑥
학폭으로 추락한 연예인과 그 파장은?

예향 초대석

미국사 전문가 전남대 사학과 교수
김봉중
“역사는 선택과 기억의 예술”

기획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께’ 주제로
4월 7일 개막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 ⑥ 제주특별자치도
자연 속에 매력 더하는
조형물들, ‘예술의 섬’
제주는 아름답다

기획-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⑥
나치에 저항한 청춘의 도시, 뮌헨
대학·광장·골목에 스며든
‘자유의 이름’ 백장미단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츨꾼, ‘더 룸’ 연출 무용가, 김설진
KIA ‘특급 신인’ 최완 투수, 윤영철